

수도권1시간대 익산여행 어때

고유가 기차여행 각광... KTX결합 렌터카 · 관광 택시이용

뜨거운 도로 위 여름 휴가 교통자욕과 고유가 걱정에서 벗어나 익산 기차여행으로 시원하게 즐기자

익산시는 호남 최대 철도 거점 렌터카 택시와 결합해 여행객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익산을 여행할 수 있도록 철도 연계 관광상품을 본격 운영한다.

예를 들면 일일 45회 이상 출발하는 KTX용산-익산행 열차를 타고 1시간대에 익산에 도착해 미리 예약한 렌터카나 관광 택시를 통해 자유롭게 익산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22~2023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선보이는 코데일 연계상품은 스탠터



카를 타고 떠나는 익산 GBack여행 △ KTX + 금강부릉이(익산 관광택시) 타고 떠나는 익산여행 △내일터를 위한 관광자원 총 3가지의 자유 여행상품이다

KTX 열차 및 금강부릉이(관광택시) 상품은 왕복열차와 관광택시 기본 3시간 이용료를 포함한 최저 7만8,800원

에서부터 시작하는 자유여행상품이다. 이는 10~60% 할인된 왕복 열차비와 30% 할인 적용된 관광택시 이용료 3만5,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기본 3시간 초과 시 1시간 당 1만5,000원의 추가금액이 발생하며, 차량 1대당 탑승 인원은 최대 4인까지 가능하다.

렌터카 익산 GBack 상품은 왕복열차와 렌터카 이용료를 포함하여 최저 8만5,600원부터 시작하는 자유여행상품이다. 이는 왕복열차비 10~60% 할인 인가와 렌터카 이용료 50%가 할인 적용된 금액이다. 익산시 관광지 2곳 인 증샷, 식당 이용 영수증을 제시하면 렌터카 1대당 24시간 기준 8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다. 내일터를 위한 관광자원 상품은 익산시를 방문한 내일터들을 위해 숙박, 렌터카를 일정금액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가 민선8기 공약 이행 추진 최고등급 목표로 공직자 실천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

익산시, 최고등급 공약실천 역량강화 '매니페스토 특강'

익산시가 민선8기 공약 이행 추진 최고등급 목표로 공직자 실천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29일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공약 담당 부서장 및 담당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매니페스토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직원들에게 공약 이행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등 원활한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19년, 2021년, 2022년 3차례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고등급(SA)에 선정됐었던 만큼 민선 8기에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민 체감형 공약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날 강사로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 초빙돼 매니페스토에 대한 개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약 수립방법, 공약이행평가지표와 평가방법 등을 강연했다.

또한 공약담당자의 실행력 강화와 공약 재원조달 방안 등 수행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 특강도 더해져 직원들의 실행 의지를 높였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자 지역 발전을 이끄는 핵심사업”이라며 “직원들의 열정과 부서의 협업을 통해 반드시 공약사항을 달성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아·태 도시 서밋 ‘군산형 탄소중립 로드맵’ 공유

일본 후쿠오카시 비대면 개최

군산시는 지난달 27일부터 28일 2일간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비대면으로 개최된 제13회 아시아·태평양 도시 서밋(APS·Asian Pacific City Summit)에 참석했다 1일 밝혔다.

“새로운 가치, 새로운 도시”란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회의에서 군산시는 12개국 31개 참가도시를 대상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산업재난지역’에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극복한 경험을 담은 ‘탄소중립 실현, 군산 Can do it’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위기 속에서 태어난 군산의 탈탄소정책은 새만금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4기에 준하는 4.7GW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국내 최대 RE100 국가사업단지”와 “그린수소



군산시는 지난달 27일부터 28일 2일간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비대면으로 개최된 제13회 아시아·태평양 도시 서밋(APS·Asian Pacific City Summit)에 참석했다

생산 클러스터’로 스마트 그린 산업 단지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탄소중립 1번지로 도약 중”이며, ‘민·관이 합

계하는 일사 속 탄소중립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황철호 군산부시장, 친환경쌀 생산단지 현장 방문

황철호 군산시 부시장이 친환경쌀 생산단지 현장을 방문해 농민과 소통하며 쌀 생산 상황을 점검했다.

황 부시장은 1일 화현농협 친환경단지(회면면 학당리 1663번지 외) 등을 방문해 최근 폭염, 장마 등으로 인한 기상상황에 따른 이상이 없는지 생산 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현재 8개 단지 381농가가 약

430ha에서 친환경 벼를 재배하고 있다. 그중 화현농협 친환경단지는 화현농협이 화현면에 펼쳐진 평야에서 무농약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을 모아 계약재배로 조직화하고 일부 남아 있는 관행농들은 친환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2021년 조성한 곳이다.

지난 2021년 10월 무농약 인증을 받

아 23농가가 20ha에서 약50톤의 친환경 쌀을 재배해 화현농협이곡종합처리장과 전량 계약재배를 통해 출하하고 있다.

황 부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신동진 쌀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는데 무농약으로 재배하면 전국에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병목도로 확장개통 춘포면 교통 개선

익산시가 ‘춘포 토다리 - 덕동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완료하고 8월 전면 개통한다.

이번 공사는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해 춘포면 토다리부터 덕동마을 구간 1km 도로에 대해 도로 폭을 8m로 확장포장하는 공사로 7월 말 최종 준공했다.

이번 농어촌도로 확포장됨에 따라 덕동 시진 봉개마을에서 시내 도심 접근성이 향상돼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뿐만 아니라 농기계, 농산물 이동이 원활해져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춘포 토다리~덕동간 도로는

폭이 4m로 협소하고 미화장구간에 병목현상이 발생해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도로확포장공사가 준공되자 덕동마을 인근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됐다”며 크게 반겼다.

시 관계자는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주신 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 도로 개선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 교통 편의를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역 소식통

군산주민시네마스쿨 영상제작(심화)과정 모집

군산시가 주민시네마스쿨 영상 제작(심화)과정을 모집한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영화·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산시 주민시네마스쿨 심화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심화과정은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실시된다.

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로 근대교육관에서 20여명을 모집해 영상·영화제작 교육 및 영상콘텐츠 공모전 참가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숨은 이야기, 이슈를 발견하고 자신의 시각으로 영상을 기획 구성하고 소통하기 위해 주민시네마스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관심있는 군산시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산돌도서관, 하반기

출석왕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 산돌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도서관 방문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책 읽기에 대한 흥미를 높여 아이들의 독서습관 형성을 돕고자 8월부터 하반기 ‘도전! 출석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출석왕 프로그램은 산돌도서관 유아동자료실(1층)에 코너를 마련해 도서관에 방문할 때마다 어린이에게 스티커를 제공, 자신의 출석관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말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상위 어린이에게는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도서 수여, 도서관 전광판 게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오는 8월에는 상반기 출석왕 어린이 14명을 대상으로 책과 연계한 체험활동 ‘해변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아이들이 도서관 및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군산 시민들의 독서 생활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